

전남 노후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재탄생한다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가 미래를 담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변신한다. 노후 학교시설을 최첨단 친환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탈바꿈시키는 '전남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19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 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교육감의 추진 계획 발표에 이어 최근 민간건축가 인력풀을 대상으로 사용자 참여설계 설명회를 갖고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추를 꿴다.

설명회에 참석한 민간건축가 인력풀은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2월 전국에 공모해 선정된 61명의 사전기획가와 축진자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비롯한 학교공간혁신 사업, 신·개축 교육시설의 사전기획과 학교 구성원 아이디어를 반영한 사용자 참여설계를 담당하게 된다.

앞서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비대면 정책브리핑을 통해 전남지역의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을

도교육청 그린미래학교 추진단 민간건축가들 대상 사업 설명회 2025년까지 175개교 242동 그린 융합형 뉴딜 방식으로 개축 디지털 시대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마을연계 공동체 사랑방 역할도

최첨단 친환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만드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40년이 경과한 지역 내 학교시설 175개교 242동을 디지털·그린 융합형 뉴딜 방식으로 개축·리모델링한다. 5년 간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1조3000억원이다. 이 중 30%(4026억원)는 국비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5개년 전체 사업 물량의 26.7%인 47개교 82개동에 대해 3600억원을 투입, 사업을 진행한다. 이 중 36동은 개축, 46동은 리모델링을 통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변모시킨다.

올해 사업 대상은 지은 지 40년 이상 된 학교다. 전남교육 정책 방향에 맞게 선정했으며, 적정규모 육성 사업이 완료된 곡성 지역을 제외한 21개 시군에 적절하게 배정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미래교육에 적합한 교육 환경으로 전환하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사업이자 교육부 핵심정책사업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올해 1월부터 교육전문직과 행정직으로 구성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연계 공간혁신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교실 구축 ▲환경생태 교육을 고려한 그린학교 ▲학교와 지역사회 연결 학교복합화 등을 4가지 핵심요소로 선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간혁신 면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설계에 참여해 가변형 교실공간, 쉽고 놀이가 있는 생활공간, 다양한 교수학습이 가능한 창의공간을 만든다는 게 교육청의 복안이다.

스마트교실 면에서는 쌍방향 원격교육이 가능한 초고속 무선망 구축, 스마트 교육기기 보급, 통합 교수학습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해 디지털 전환시대에 걸 맞는 스마트 학습환경을 조성한다.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한 그린학교 조성으로 학교가 생태 문명 전환의 학습장이 되도록 한다는 게 교육청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건축물을 만들고 생태교육이 가능한 공간을 만든다.

학교복합화 측면에서는 지역 주민의 출입이 자유로운 마을연계 공간, 돌봄과 방과후교육·마을 교육을 위한 공간, 마을도서관 등을 만들어 학교가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학교는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호되고, 유연한 교수학습이 가능하며 휴식과 놀이가 균형을 이루는 삶 중심의 공간으로 변모한다. 학교는 그 자체로 환경교육 콘텐츠이자 교재가 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재양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변운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은 "교육에서 '잘 살아가기(웰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는 학생의 효율적 수업 공간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공간으로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 같은 시대정신을 반영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달 비대면으로 열린 '전남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브리핑 자리에서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사업 목적과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현황도

5개년 175교, 1조3천억 / '21년 47교, 3천6백억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다양한 공간혁신

- 사용자 주도의 창의적 학습공간
-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교수학습 운영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교실

- 개별 맞춤형 스마트 학습환경
-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혁신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한 그린학교

- 재생에너지 실현, 생태휴식공간
- 탄소중립 실현, 환경생태교육의 장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복합화

- 지역과 공유하는 학교 복합시설
- 지역교육공동체와 교육과정 연계

'21년 지역별 선정현황

지역	교수	면적	예산
목포	1	1	1
여수	1	1	1
순천	1	1	1
나주	1	1	1
광안	1	1	1
담양	1	1	1
구례	1	1	1
곡성	1	1	1
구례	1	1	1
영광	1	1	1
영암	1	1	1
함평	1	1	1
장흥	1	1	1
보성	1	1	1
고흥	1	1	1
진도	1	1	1
신안	1	1	1
완주	1	1	1
진안	1	1	1
무안	1	1	1
곡성	1	1	1
구례	1	1	1
영광	1	1	1
영암	1	1	1
함평	1	1	1
장흥	1	1	1
보성	1	1	1
고흥	1	1	1
진도	1	1	1
신안	1	1	1

'21년 3월 대상선정 → '21년 4월- 사전기획 → '21년 11월- 설계·영점절차 → '23년 1월- 시공 → '24년 7월- 운영

"휴식과 놀이가 균형 이룬 삶의 공간으로 안전·학습권 보장되는 학교로 바꾸겠다"

사용자 참여설계 설명회와 함께 본격 시동을 건 '전남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관련, 책임자인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업은 단순 시설 보수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첨단화된 미래형 교실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에너지와 생태를 담은 그린학교, 무선인터넷이 첨가된 구비된 스마트교실로 확 바뀔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음은 장 교육감과 인터뷰 일문일담.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 '한국판 교육뉴딜'이라고도 불리는 데 어떤 사업인가.

전남 전체 학교 중 40년 이상 경과된 교사동 건물이 33%에 이를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하다. 이러한 노후학교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방수, 창호, 외벽개선 등의 공사가 진행되어 많은 불편이 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눈앞에 다가온 미래교육에 대비하기 위해 '전남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에서 도 교육청이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코로나19가 서둘러 불려온 미래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학교가 단순한 수업 공간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공간'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전남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그 시대정신을 반영한 미래형 학교로서 ▲교육과정 연계 공간혁신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교실 구축 ▲환경생태 교육을 고려한 그린학교 ▲학교와 지역사회 연결 학교복합화 등 4가지 핵심요소를 바탕으로 방향을 설정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40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학교시설 중 175개교 242동을 개축·리모델링

한다. 5년 간 총 사업비는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47교 82개동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4월부터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전기획 용역이 9월까지 추진한다. 연말까지는 공공건축 사업 계획 수립, 개축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는 실제 설계가 진행되고, 공사 착공은 2023년 1월부터 진행하여 2024년 7월쯤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이 큰 만큼 건축업체 등 지역사회와 호흡이 중요할 것 같은데 복안은 있는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새롭게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와 협력을 이루는 삶 중심의 공간으로 바뀔 것이다. 학교는 그 자체로 환경교육 콘텐츠이자 교재가 되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이 가능하게 된다. 전남교육청은 2021년, 올해를 여전한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표준과 희망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전남 미래학교를 육성해 미래인재 양성의 기반을 다지겠다.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제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